2000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建設交通局

日 時 2000年6月29日(木) 10時01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10時01分 監査開始)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先輩 同僚 委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로구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2000년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루어온 많은 도시문제들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열매를 거두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지금까지 각자 맡은 바 중책을 완수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의 노력이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으며 그동안 애써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밤낮 없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종로구의회가 화합과 단결과 진정한 민의의 수렴장으로 거듭나 주민들로부터 한껏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끝까지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로 건설교통국의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제5항에 의한 선서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증언할 수 있게 하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吳鍾錫 建設交通局長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關係公務員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建設交通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土 木 課 長 李宗哲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委員長 吳弼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업무보고 이전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洪柱喆 建設管理課長입니다.

李宗哲 土木課長입니다.

李相道 交通行政課長입니다.

宣圭景 交通指導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吳弼根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그동안 베풀어주신 건설교통분야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에 먼저 전직원을 대표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0년도 하반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交通局 業務報告

(建設交通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吳弼根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5급이상 과장급 공무원만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담당주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吳鍾錫局長님과 각 課長님께 委員長님께 委員長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준비 부족과 성의 없는 답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으면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모든 자료의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하고 자료에 대한 사전 숙지를 통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감태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매년 감사때마다 지적되고 논의된 얘깁니다마는 공영주차장 건설 때 최소한 100평 미만은 건립치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있었는데 지금 '99년 가회동 11번지 53호 97㎡ 3대를 대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숭인동 72-170 178㎡ 차 7대 주차하기 위해서 2억 8,2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부지 매입부족비입니다. 시설비는 안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돼서 조그만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겁니까? 차 3대를 대기 위해서 1억 2,000씩 투입을 하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玄壽漢委員님 질문사항

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230여 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규모문제 이것은 어떠한 규정이나 기준이 나와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소규모 필지이면서 차량 대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운영하는 가치가 없겠느냐 이러한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회동과 숭인동을 부지 매입한 것은 그 지역의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가회동은 지정보호수가 인접해있고 지정보호수 관리 차원이나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필지지만 구매를 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든 바가 있고 지금 숭인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과 동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수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모가 작지만 주택가의 일부 교통난 해소라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다분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지가 100평 이상이 돼서 차량을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가회동은 지정보호수를 관리할 겸 해서 샀다고 했는데 주차구획선을 3대분을 그어놓으면 유룝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회동은 3대기 때문에 유료는 유룐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玄壽漢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주야간 4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동네는 비싸니까 또 비싸다고 생각지 않고 거기다 안대고 이면도로에다 갖다대고 단속을 안하니까 내가 돈 4만원씩을 왜 내고 대느냐, 그러니까 유료인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돈도 안내고 안들어간다 이거야. 이면도로 골목에 갖다 대가지고 원성이 잦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물론 자투리 땅이 나왔으니까 사준다. 차 1대라도 댈 수 있다는 계산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평당 얼마꼴입니까? 전부가 '99년, 2000년 4월 10일 숭인동 1건만인데 평당 400만원 이것도 시설하고 뭐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는 금액이 나올거라구. 이것을 차라리 그런 이유 때문에 월정료를 내는 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된다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다 해줘버리고 말던가 받으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땅값이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뽑아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97년, '98년 그 이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소규모 필지 명륜동에 80평 사가지고 한 게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2층으로 한다고 그래도 누가 임대도 안하고 대지도 않고 막대한 돈 평당 거의 1,000만원씩 들여 갸지고 시설하니까 1,200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평당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후에 소규모 필지 100평 미만은 아예 접근을 하지 말라는 감사 때마다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지만 창신2동 성곽도로 지금 서울시 보조로 공원녹지화 저거를 해서 주택을 철거를 했는데 평수가 2만㎡나 된다고. 그런데 방대한 거죠. 제가 볼 때 성곽도로상에도 노상주차장을 구획선을 그어놨더라구. 그러면 성곽 벽이 축대가 경관도 훼손되지만 그 밑으로 2001년까지 녹지조성을 공원화하겠다 그랬는데 저 밑에서 도로에서 성곽도로까지 하면 한 4, 5층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거기에 저쪽 도로에서 성곽도로쪽으로 해서 한 1, 2, 3층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창신2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막대한 주차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5층씩, 6층씩 올려도 차 1대 댈 자리 없이 건물만 빼끔히 짓고 집집마다 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2001년까지 시비를 받아서 공원 조성을 할 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1,

2, 3층을 주차장 해서 이 비싼 땅을 사느니 이것은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건설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해서 그 건설비를 다시 뽑든지 하는 무슨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玄委員님께서 낙산공원화지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낙산공원화사업이 추진될 때 그 지역 이화동, 창신동 구의원님과 저희 구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용역이 들어갔을 때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낙산공원화사업 지역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창신동지역 주민하고 이화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협의 조율한바 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됐는데 아무튼 주변지역의 주차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委員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시행하는 서울시하고 일차적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비싼 대지를 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니까 이것은 대지 줄 필요도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구 입장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활용 방안이 정말 좋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한바퀴 돌았더니 너무나도 주차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건의 말씀을 드려야 또다시 협의나 조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드렸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玄壽漢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딱딱한 질의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본 좋은 사항은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묻습니다. 인터넷의 여론광장이나 민원상담란에 교통행정과의 차량등록업무에 민원안내를 친절하게 한다는 얘기가 자주 오르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종로구청에 가서 한 수 배워오라는 말이 있는데 지방차량등록사업소에 견학을 오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친절도가 좋다고 그래서 놀랐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을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안내실에 안내인 2명을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에게는 서류작성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를 직접 청취를 하고 그 다음 다른 구청하고 조금 다른 사항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차량번호판을 저희들이 가서 달아줍니다. 원래는 본인들이 달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공익요원이 직접 달아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창구에다 설문서를 항상 비치해놓고 오시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작성토록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놔가지고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 매주 화요일날 일과시간 전에 한 8시 반쯤 등록계 직원들만 課長, 係長, 직원들하고 별도로 간담회 비슷하게 서로 전주에 있었던 사항을 토의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보자 하는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金福同委員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강북구청장도 저하고 친척뻘 되고 부구청장도 친척뻘 되는데 그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交通行政課長이 누구냐고. 오는 사람마다 교통업무에 대해서 종로구청에 가서 배워오라는 얘기를 많이 한데요. 그래서 조금 의원으로서 긍지가 생기더라구요. 끝까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다음 171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노점상 연도별현황 '98, '99, 2000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2000년도에 와서 새로운 각오로 노점상에 대해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노점상 숫자 개념은 계절이나 시간 월 단위로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

1,207개는 2000년도 3월에 노점상 센서스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일제히.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거구요 '99년도 1,431개는 '9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조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난번에 예산도 배정해주시고 하셔서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건설관리과의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노점상 밀집지역이라서 자주 나가서 보고 있고 일전에 구정질문에서 노점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질의했더니 노점상 연합회에서 저하고 면담하자고 팩스가 오고 그래요. 잘 얘기해서 그런 일이 의원한테 오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 하천부지와 도로점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네.

○金福同委員 하천부지 사용하는 게 싼가요? 아니면 도로점용료가 싼가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도로점용료는 5/100이고 하천점용료는 1.5%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로점용료보다 하천점용료가 3배가 비쌉니다.

○金福同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로구 효제동 175번지에 김원기란 분이 있습니다. 거기 포장을 해놓은 완전히 하천부지입니다. 그 곳에서 약 40년 간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아들, 딸을 낳아서 그 분들이 현재 40세가 넘었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그러한 하천부지 사용료를 몇 만원부터 죽 내고 살았는데 요즘에 와서 이분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평쯤 됩니다. 그런데 17~8평정도 사용한 걸로 해서 이것도 하천부지인데 도로점용료로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이 양반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자동차도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데 이게 하천부지인지 도로점용부지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몇 년 전부터 찾아보면 하천부지란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게 서민들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지 서민을 마구 혼내는 행정보다는 사용료도 삼천 몇 백 만원인가 못 내고, 너무나도 엄청나게 나오니까 못 내는데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해소할 수 있다면 해소해주십시오. 이 분들 계속 놔두면 안됩니다. 잘 아시겠지요? 답변 한번 해보실랍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효제동 175번지 하천점용료 관계는 委員님께서 착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도로점용료보다 3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도로인지 하천인지 모르고 그냥 점용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율이 달라서 저희들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조례도 변경시킬 겁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가서 봐도 7평정도 되는 걸 열 몇 평 사용하는 걸로 해서 엄청나게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줄여주는 건 모를까 늘리는 건 서민들 죽이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쪽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 허가건수 부과징수 해가지고 '99~2000년까지인데 보면 금년에 들어와서 돌출간판이 줄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줄었다는 뜻이 아니고 작년 '99년도는 돌출간판 과세하는 걸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거를 올 해 과세하고 이러니까 징수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이에 소재변경이나 명의변경을 해가지고 징수율이 떨어져서 작년도에는 '98년도 거를 '99년도 6월에 부과하고 '90년도에 해당되는 걸 '99년도 12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작년도의 돌출간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허가 분은 올 연말에 과세하기 때문에 무허가 분 과세건수가 없는 겁니다.

○金福同委員 어제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간판세는 만약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하면 좋지만 사업을 하다가 요즘 IMF 때문에 그만 두시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즉시 부과를 못 한다면 받기가 어려운 걸로 봅니다. 1

년 동안 결손 처분되는 거 꽤 많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리고 종전에는 돌출간판점용료가 이걸 양면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고 체납도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면만 과세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도 줄고 징수율도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과세를 하기 이전에 직접 여기 직원을 통해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7쪽인데 왠지 우리 종로구청이 염화칼슘을 많이 사다가 창고에다 쟁여놓고 세비를 한쪽에다 묶어놔도 됩니까? 염화칼슘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아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분포도를 보면 해마다 증가됐지요? 지난해는 엄청난 양을 구입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남았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염화칼슘 사용량을 사실상 그 해 그 해 기상현황에 따라서 사용량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을 잡아서 어느 정도만 확보하겠다 해서 여유있게 저희들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예산관계가 제설대책기간이 1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그전 해에 확보돼 있는 제고하고 그전에 쓰고 이듬해에 새로 예산 잡아 가지고 다시 확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1~2월 달은 신년도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제설작업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확보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눈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지만, 구입은 하지만 생산공장에서 한 공장에서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오니까 배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금년을 예로 들면 저희들이 재고가 1월 달에 한 500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비가 올 때 보통 저희들이 1회당 적게 써도 1,000포를 쓰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면 염화칼슘 보관해놔도 질이 떨어진다든가 성분이 감소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가 종로구청 예산으로 사다가 군부대나 소방서, 경찰서, 국무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주는 겁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서에도 자기네들 예산이 있는데 왜 종로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다가 그 사람들을 줍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관들 한테 배정하는 것은 교통 요소 요소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면 사거리나 이런 데 교통초소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경찰관서나 관계기관에 우리가 협조해주는 겁니까? 우리 말 좀 잘 들어달라구?

○土木課長 李宗哲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로터리 같은데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안 되면 도로에 쓰는 염화칼슘은

○金福同委員 염화칼슘 사용 목적이나 이런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우리 구청에서 다뤄야 되고 종로구청 직원들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예산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명심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다음 170쪽입니다. 불량맨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불량맨홀이 지금 종로거리에, 대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로거리가 맨홀로 인해서 자동차 가는 길에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되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종로통을 통과하는 지하철 지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나갈 때 우리 課長님 맨홀 건너가는 그 옆에 서 계신다면 소음이나 진동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붕괴가 된다고 봐요. 지하철역을 들어가서 보면 균열이 다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균열이 가고 지

하철 역사를 보면 금이 많이 가있어요. 종로5가에 가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종로5가 지하철 들어가는 바로 통로 입구에 맨홀뚜껑이 몇 개 있는데 그곳을 통과하면 통통 소리가 나고 붕괴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福同委員 시간이 나는 대로 직접 뛰는 행정, 현장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도 많고 하시지만 그런 것을 차근차근 챙겨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역주민이나 민원인이 해달라기 전에 우리 직원을 통해서 課長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191쪽 보안등 격등을 우리가 IMF 때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등은 한전과 협조가 돼서 요금을 우리 종로구청이 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종로구청이 냅니다.

○金福同委員 격등을 했을 때 요금이 얼마나 저축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격등제로 하면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1년 보안등으로 인한 전력 소비량은 얼마이며 우리 1년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는지 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IMF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½ 정도는 격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金福同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지금 상당 금액의 전력요금을 저희들이 한전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로등과 일부 보안등, 공원등까지 격등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IMF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격등제를 해제하고 전체 점등할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저희 관내만 격등제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보안등도 매년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골목에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인 형평유지의 문제하고 주민의 요구사항 등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보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대학로와 율곡로 주변에 현재 보조등을 설치했는데 그 보조등을 설치한 이후에 종로가 아주 인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걷고싶은 거리, 학생의 거리가 보조등을 해서 아주 밝고 좋다고 하는데 보조등을 켜놨으면 됐지 그 위에까지 켜고 있는데 이중으로 우리가 전력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래서 지금 대학로 주변과 일부 노선에 대한 보조가로등 이걸 설치한 것은 金福同委員님도 의회 때 말씀을 주셨고 또 崔康洵委員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가로등은 보행자를 위한 가로등이고 현재 설치돼 있는 가로등은 차선의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력 면은 이중으로 부담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주민 통행에 불편을 해소한다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해소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金福同委員 종로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명소가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局長께서 보조등이나 걷고싶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앞장을 서셨기 때문에 모든 게 잘 이뤄진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192쪽 창경궁로와 대학로간의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지난 해 이 도로 확장공사를 해놓고 약 7~8개월 동안 덧씌우기인가 아스콘 포장공사인가를 못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럼 포장공사를 할 때는 아스콘을 몇 ㎝로 해야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가장 표층은 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5㎝면 너무 얇지 않을까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은 여러 가지 밑에 층을 두고 있습니다만 교통의 원활함이나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표층은 5㎝로 하고 그 밑에 #467이라고 있습니다. #467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한 7~8㎝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계로 하면 아스팔트가 한 12㎝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잘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래가 30㎝, 자갈이 30㎝, 그 다음 아스콘이 5㎝입니까 50㎝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러니까 자갈이 보조기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중층정도로 설명이 되는데 노상 형태에 따라서 한 60㎝ 정도를 깔구요 그 위에 #467이라고 해서 덧씌우는 게 있습니다. 아스콘 중에. 덧씌우는 것이 한 12㎝나 8㎝깔고 마지막 표층이 5㎝, 면이 좋은 그것이 아스콘 #78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5㎝ 깔면 통행이나 유지관리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을 도로로 잘 만들어놨지요? 잘 살고 있는 종로구민들을 외지로 보내면서 도로를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이 도로를 낼 때는 백년대계, 천년을 앞으로 하고 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넓게 편안하게 잘 만들어놓고 宣課長께서는 그곳에 주차라인을 그어서 불하를 하겠다는 말이 종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하느라 제가 무지하게 애를 먹었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 외부로 쫓아놓고 종로구청에서 땅을 사서 도로 만들어놓고 주차라인 그어서 돈벌라고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마음 달리 잡수셨죠? 거긴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는 거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게 잘못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원이 욕먹는 일은 안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말 한마디에 구청이 욕먹고 의원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45분씩 하는데 나는 30분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관내 유형별 장애인차량 등록현황 2000년 5월 현재까지 장애등급별로 보면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별로 장애도 없는 사람이 장애인 마크를 붙이고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 가는 게 많더군요. 우선 주차장도 혜택을 보고 기름값도 가스로 교체해서 쓰고 있고 그런데 장애자인가를 내줄 때 확인하고 내주십니까? 차량등록 받을 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차량등록 받을 땐 저희들은 확인하지 않고 받습니다.

○金福同委員 확인하지 않고 장애자라는 증명만 가지고 오면 다 해줍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장애자가 오지 않아도 이 분들은 특히 타인명으로 하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 자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세무2과에서 면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료에서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십시오.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자동차 등록세나 모든 것에 혜택을 주는데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예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너무나 관대한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장애자도 아니고 가족 중에 장애자도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 마크를 붙이고 자동차를 개조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내준다면 저부터도 돈은 없지만 차 사 가지고 장애인 마크 붙이고 가스차 쓰게되면 연료비가 얼마나 덜 들어갑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그럴 겁니다. 안 그럴까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장애인인가 비장애인인가? 차량등록이 장애인

앞으로 돼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일전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상의해서 나한테 나중에 해준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진정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해야할 곳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곳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종로5,6동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이 기독교회관에 인접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새로 난 소방도로, 우리 성결교회에서 굴다리간에 너무나 굽이가 심하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 방지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안 해주고 다른 곳에 해주더라 이겁니다.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 6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지난해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임시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지턱을 안해줬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있고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방지턱을 우선 해달라고 동장께서도 올라왔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을 선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예,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212쪽을 보시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투자 및 금융예탁금 현황입니다. 현황 투자율을 보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많이 있죠? 230억인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234억

○金福同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IMF로 우리가 은행에서 갖다가 쓰는 돈은 20%까지 낼 때에 우리 구청에서 예치한 것은 7.8%밖에 이자가 나오지 않을까 국장님이것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金福同委員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맡긴 돈은 7.8%밖에 안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8%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20% 당시 때에는 우리가 맡긴 이자율은 12.3%였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데 왜 지금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1년짜리기 때문에 '99년도에 가입한 것이 7.8%고 IMF 당시 20%때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金福同委員 20%로 몇개월간 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것이 원래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이자는 종로구 재무회계원칙에 소관사항이 재무과장이 소관사항입니다.

○金福同委員 과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교통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재무국 소관이라고 하십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구청의 자금관리는 재무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과장님 과에 속한 금액인데 상세하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제가 말씀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선 소관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답변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답변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金福同委員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지금 7.8%하고 8.9%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에 보면 그래서 2000년 4월 30일 이전에 든 것은 8.9%고 그 이후에 든 것은 7.8%입니다. 2000년 5월 1일부터 다시 금리가 인하돼서 7.8%가 된 것입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니까 현재 인하된 금액으로만 했다는 것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2000년 5월 1일 이전에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은 8.9%를 받고 5월 1일 이후에 받는 것은 인하돼서 7.8%를 받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IMF 시절에 우리가 차액이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98년 2월 2일부터 '98년 11월 1일까지는 12.8%였고 이것이 변동금리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입니다.

○金福同委員 과장님 말씀을 내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습니다. 차액이 3%이상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왜 차액이 기재가 안됐느냐 이겁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입 연월일을 보면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입 당시에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金福同委員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3. 몇%인가를 더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못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9%였었는데 12. 몇% 더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98년도의 가입분은 12.8%였습니다.

○金福同委員 차액이 얼마 남아있다, 얼마 이자율이 더 불어왔다 이러한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잖아요. 돈 200억 이상을 예치를 했는데 얼마 기간은 우리가 이윤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남긴 근거가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福同委員 자료 안나왔으면 자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니까 저에게 20분만 하라니까 얼마 안남았으니까 조금만 하고 213쪽 봐주십시오. 운수사업에 대한 관계법령위반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법령 위반차량 단속현황, 근거법령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위반차량 차적지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밤에 무단주차한 것이 하다도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213쪽입니다. 하단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福同委員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단속을 못했다는 거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운수사업법상에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여객과 화물로 둘로 구분되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로 5,6가동 관내에 지방에서 올라온 화물자동차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정당하게 한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세웠다가 업무를 보고 빠져나가고 해야 되는데 도로, 주택가 여기에 방치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붕붕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단속대상 아닙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수차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고 여러 방법도 강구하고 합동단속도 했습니다마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金福同委員 맥락이 틀리다는 것은 압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온 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여러 번 나와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평소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 경우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으로 하지 차고지 밤샘단속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법주정차단속으로 해서

○金福同委員 불법주정차 단속으로라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충신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金福同委員 신경을 쓰는 것이 과장님 말씀으로

혼자 신경쓰시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겠는데 주·정차단속실적 및 범칙금 시효결손 처리현황 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시효결손 처리현황에서 2000년 5월 30일 현재 그것을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종로5,6가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종로5,6가동은 종로1,2,3,4가동은 많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5,6가동 란하고 1,2,3,4가동 란을 한 번 봐주세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1~4가동은 5,275건이고요 5,6가동은 4,729건

○金福同委員 그런데 왜 종로5,6가동하고 1~4가동은 그렇게 많은가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다른 동보다 왜 많느냐 그런 뜻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주·정차가 외부차량이 그만큼 많이 오니까

○金福同委員 외부 차량이 많이 오니까 돈을 벌자 이 뜻이죠?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수입 주정차단속이 수입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과장님! 오늘부터 마음을 다른 쪽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해서 수입이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종로에 크고 작은 상인들이 모두가 한마디로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상가가 밀집한 곳에 어느 정도는 터줘야 되지 계속 단속만 심하게 하면 상가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님께서 칭찬과 질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먼저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 그리고 李宗哲 土木, 洪柱喆 建設管理, 李相道 交通行政, 宣圭景 交通指導課長님! 건설교통부서의 전직원에게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吳鍾錫局長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5월 30일 현재 도로가판점 수가 337개로 되어 있네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맞습니다.

○宣相善委員 최초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동일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宣委員님 말씀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는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일부가 최초 소유자가 아닌 제2, 제3의 인물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규정상에는 전대나 임대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규정상 못박아져 있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宣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성화 또는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 보도상에 영업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6월 10일날 입법예고해서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宣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분명히 소유자 변경은 불가하게 되어 있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심증으로는 추적이 되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宣相善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확실하게 못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허가 양성화나 비슷한 것 같은 개념으로 소유자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가판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세하고 또한 서울시 전체적으로 집단화로 해결할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된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가로판매점이 171개소, 구두닦이박스 133개소, 토큰판매소가 33개입니다. 그래서 도합 337개가 우리 종로관내에 있는 거죠? 토큰판매소가 따로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토큰판매소가 토큰 판매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버스카드 충전소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토큰판매소라고 해서 33개가 따로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토큰을 팔았었는데 토큰 파는 것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버스카드충전소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대체해서 충전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파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일부 지역은 토큰판매만 하는 장소가 있고 신문판매와 병행해서 하는 장소가

○宣相善委員 33개가 있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과거에 토큰판매소는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은 카드충전소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변경해서 운영합니다.

○宣相善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큰이나 충전소만 가지고 33개가 있지 않고 전부 가판점에서 병행해서 했으면 했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같이 운영을 합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여기 가로판매점이 있고 토큰판매점소이 별도로 있는데 33개가 어디 어디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洪柱喆課長! 답변해 보세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宣相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충전소 33개는요 일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로에 나와있는 것이 있고 자기 가게에서 토큰판매 전에는 토큰을 팔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카드충전소죠. 그 숫자를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도로가판입니다.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가판도 있고 별도로 그것은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카드충전소라고 하는 것은 33개가 확실합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예.

○宣相善委員 감사 중에 말씀드릴 것은 吳鍾錫局長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자료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宣委員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감사하시는 위원님이 보실 때는 미흡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宣相善委員 미흡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은 분명히 있고요 국장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들은 위원들은 생각할 수 있고 국장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앞서 金福同委員께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것도 있고 또는 본 위원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다음 172쪽 봐주십시오.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인데 시수입과 구수입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m이상 도로는 시유 도로기 때문에 시수입이고 20m미만 도로는 구유 도로기 때문에 구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렇죠? 그런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세수증대를 하는데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체납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체납정리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를 위해서 담당자별로 체납목표액을 줘서 저희들이 주간이나 월단위로 계속 확인하고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각종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납부자까지 재산압류는 할 수 없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국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너무 노련하셔 가지고 항상 '95년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일관되게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는 소위 답변은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등 수없이 하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각오로 하겠느냐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금년 5월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250건에 1억 2,000만원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까지 시행한 바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담당직원으로 해서 담당별로 체납징수액을 할당을 해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두번째는 재산압류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재산을 조회를 해서 가능한 재산압류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확대를 하고 재산압류까지 해서 체납되는 고액자에 대해서는 공매까지 할 수 있는 절차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내가 참고로 어제 대한매일신문 28면에 보면 도봉구의회는 징수과, 부과과 감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격려하고 덕담을 하고 격려품도 전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제 대한매일 28면 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봤습니다.

○宣相善委員 '98년도에 26억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25개 구에서 우수구라고 작년도에는 최우수구로 되었다는 것. 우리도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답변만 맨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조치된 게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음 173쪽 봐주십시오. 관내 간선도로에 설치한 한전 승압기가 있습니다. 관내의 이것은 변압기 말하는 거죠? 지층화하면서 변압기 박스 말하는 거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몇개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우리 관내에 556개소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 중에서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바뀌어지나요? 그것도 아까 20m도로로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총 면적이 239평 정도 되네요? 20m이상 도로에 있는 것이 173평, 이하가 66평인데 시수입으로 되는 것하고 구수입으로 되는 것하고 부과액이 다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부과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부과방법이 작년 9월 8일 이후에는 바뀌어 가지고 한전에 대한 변압기 전에는 작년 9월 8일 이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 이후에는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개소당 2,000원 이렇게 개소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는 똑같습니다.

○宣相善委員 현재 그러니까 6,393만원이죠? 시수입으로 되는 것이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宣相善委員 잠깐만요, 571㎡에 6,393만원이 시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0㎡에 구수입으로 되는 것이 1,885만 2,000원이 되었어요. ㎡당 시수입으로 되는 것은 12만 1,961원이 되고 구수입으로 되는 것은 8만 5,69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9월 8일 이전에는 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방법이 도로의 인근지역 공시지가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시 도로는 인근지역의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산출금액이 높게 나왔고 구 도로는 인근지역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9월 8일 이후에는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소당 얼마 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렇습니까? 밑에는 공중전화 부스설치 및 실태현황 '99년부터 2000년 5월 30일 현재까지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99년 8월 이전에는 면적당 하고 이후에는 개소당 한 거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밑에 '99년도 것은 개소당 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공중전화 부스는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개소로 한 거요? 어떻게 한 거요? 이 자료에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개숩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개소당 이렇게 틀리네요. 1,092만 1,000원이에요. 413개소에 시수입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개소당 2만 6,643원이 되고 우리 구수입으로 되는 것은 개소당 2만 9,080원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많네요? 왜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왜 차이가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구수입이 많으니까 좋은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서요?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宣相善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것은 550건인데 1,400만원이고 2000년도 것은 576건에 3,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거죠?

○宣相善委員 아니, 시수입과 구수입이 분리돼서 시수입은 413개소에서 1,092만 1,000원인데 이게 개소당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공중전화부스는 개소당 5만 4,200원입니다.

○宣相善委員 그것은 2000년도에 하고 '99년도 거를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99년도 거도 이거는 개소당

○宣相善委員 위에를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왜 개소당 틀리냔 말이죠.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개소당 왜 틀리냐 하면 2000년도 것은 5만 4,200원 곱하기 개소를 해가지고 감면률 50%를 감면한 사항입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2000년도 거는 맞는데 5만 4,200원이 맞는데 그 위에 보면 137개소에 2만 9,000원하고 413개소에 2만 6,640원은 이게 왜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이게 50% 감면된 금액입니다.

○宣相善委員 어떤 게 감면됐습니까? 구수입이 감면된 겁니까? 아니면 시수입이 감면된 겁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시수입이든 구수입이든 전부 50%입니다. 산출금액에서 50% 감면된 겁니다. '99년도 것은

○宣相善委員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을 모르는데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宣相善委員님 말씀하신 '99년도와 2000년도에 금액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99년도 것은 한전이나 공중전화박스는 점용료 중에서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자료는 맞

고 2000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50%를 감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자료 중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앞으로 50%는 감면해줘야 합니다. 이건 부과했던 내용이고 50%를 감면해주면 '99년도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사항은 이 자료 '99년도 것을 죽 보면 구수입에서 137개소하고 시수입으로 되는 413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이렇게 한다면서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구수입으로 하는 137소는 2만 9,000원이고 시수입으로 하는 413개소는 2만 6,600원이다 이 말이에요. 3,000원의 갭이 생기느냐 이 말이죠.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지. 아시겠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음 176페이지 4번에 보면 승인동 190~347번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347번지가 어딥니까? 보문동 말하는 겁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오타가 난 겁니다.

○宣相善委員 547번지지요?

○土木課長 李宗哲 네.

○宣相善委員 폭 6m에 길이가 몇m입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170m입니다.

○宣相善委員 그리고 왜 194-547번지 이렇게 했어요? 행자부로부터 6억 가져와서 한 거지요?

○土木課長 李宗哲 네.

○宣相善委員 도로개설입니까? 아니면 보상협의입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보상입니다.

○宣相善委員 도급비는 별도입니까? 이 예산에서 도로공사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보상비만

○宣相善委員 보상비만 6억입니까? 현재 집행이 2억 3,100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상비가 6억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보상 전체 다 됐죠?

○土木課長 李宗哲 공사비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宣相善委員 6억 가지면 다할 수 있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네.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6억에서 2억 3,100만원 보상하고 2억 6,900만원 남은 거죠?

○土木課長 李宗哲 3억

○宣相善委員 3억 6,900이 남았지요. 그럼 이 액수로 공사를 다 하실 겁니까? 다할 수 있어요?

○土木課長 李宗哲 연말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확실합니까? 금년도에 다 끝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네.

○宣相善委員 그러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177쪽 앞서 金福同委員님이 물었던 내용인데요 '98년도 염화칼슘 이월량이 4,328포, '99년도 염화칼슘 반입량이 1만 1,900포, '99년도 반출량이 1만 2,609포네요. '98년도 이월량하고 '99년도 반입량 1만 1,900포 해서 1만 6,000

○土木課長 李宗哲 '98년도 이월량하고 '99년도 반입량 해서 1만 6,320포 중에 '99년도에서 금년까지 쓴 게 1만 2,609포를 썼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잔량이 3,700포가 남았다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구의 타부서, 동사무소, 유관기관 이렇게 자체 제설작업에 들어가는데 아까 金福同委員님이 물었던 부분인데 유관기관에는 별도로 나오는 게 없나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게 없나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네.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전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네.

○宣相善委員 편의상 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제설작업의 책임이 서울시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나 각 구청이나 유관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자체 제설작업으로 1만 442포가 나갔는데 어떻게 염화칼슘을 뿌려요? 작년엔 그렇게 눈이 많이 왔나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제설작업은 물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설이 예상됐을 경우에 원래 간선도로에 포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설량을 줄이기 위해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 주요 간선도로에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예상해서 들어가는 물량도 있고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포설하는 사용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히 어떤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이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98년도 보면 4,428포나 남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물론 매년 평균치로 어느 정도 나가겠다. 물론 어느 해에는 눈이 많이 왔을 경우도 있겠고 결빙이 돼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많은 것이 잔량이 남으면 창고에 보관해야 되지요? 염화칼슘 효과가 떨어지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효력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재고량을 확보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12월 정기회 때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면 각종 단가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월 중순 이후에나 각종 물가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제설대책기간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시기가 12월 말부터 1월 중순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잔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12월 달과 1월 달에 오는 눈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지 않는다면 그 다음 해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간 차이가 있어서 비축량을 항상 3~4,000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통의동 7번지 108호간입니까? 아스팔트 씌우기 포장공사 내역과 재포장 사유, 이 재포장을 왜 했나요? 밑에 내용을 보니까 재포장에서 일부 노면상태 불량, 이음부분 불량, 침하 등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 재시공했다고 4월 15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그게 아마 작년에 포장한 시기가 11월 한 20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일기상으로 상당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스팔트라고 하는 것은 온도하고 기온과의 상관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추울 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면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의 민원도 있었고 구의원께서도 지적이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순찰을 했을 때 표면이 박리되고 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4월 달에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는 작년에 포장했던 걸 깎아내고 재포장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宣相善委員 이게 약 600평인데 이거 재포장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2,000만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宣相善委員 작년 추울 때 하셨다는데 꼭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 포장을 못 하고 그때 꼭 했어야 됩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그때 작업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 가지고 어차피 아스콘 생산업체하고 공급일정이 그렇게 잡혀서 작업을

○宣相善委員 아니 그러니까 추워서 못 하는 공사는 중단해야지 그런데 그때 꼭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재포장해서 주민의 혈세나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네.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음 '99년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166개소의 하수맨홀 36, 상수맨홀 45, 체신 64, 한전 15, 가스 6개 해서 166개소입니다. 맨홀공사 맨홀교체를 하는데 공사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작년에 도급비로 나간 게 1억

1,800여 만원입니다.

○宣相善委員 1억 1,814만원 맞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네.

○宣相善委員 그러면 1개당 얼마입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1개당 70만원 조금 넘습니다.

○宣相善委員 맨홀 하나 하는데 70여 만원이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局長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수맨홀, 상수맨홀, 맨홀 하나 하는데 칠십 몇 만원 그렇게 소요가 되냐구요? 課長님! 그렇게 들어갑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가도 유심히 봅니다. 2년 전에 새로 도로 개설할 부분 옆을 컷팅을 하더라구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교체하는 겁니까? 파고 나서 다음에 다시 거기에 아스콘만 씌우고 하나가 교체되는 걸로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저희들이 맨홀을 정비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아니 정비를 하는데 몇 년 전에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새 도로에. 그 옆을 커팅해 가지고 파서 다시 아스콘하고 그러면 맨홀 하나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셨냐구요.

○土木課長 李宗哲 委員님께서는 맨홀정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宣相善委員 맨홀 교체란 거는 전체적인, 모든 것을 교체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71만원이 개당 들어간다면 전체적인 교체가 아니겠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높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조절 하나 하는데 72만원이 들어가요?

○土木課長 李宗哲 맨홀에 따라서 어떤 부속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추가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맨홀 자체를 다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구조에 따라서 부속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맨홀 교체가 아니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작업도 72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어요?

○土木課長 李宗哲 그건 시행하는 설계서가 있으니까요.

○宣相善委員 그럼 관내 이번에 166개소하는 거 작업내역 다 있지요?

○土木課長 李宗哲 네.

○宣相善委員 본 위원이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네.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재해대책기금 확보를 2억 8,000만원 했나요?

○土木課長 李宗哲 네.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사용내역을 보니까 수중펌프 외 상용구매 1,050만 5,000원, 침수방지 하수관 계량 및 설치해서 7,100만원, 부암동 200만 4,000원 그리고 수목정비가 한 2,200만원, 정밀안전진단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작년에 사용한 금액이 1억 2,555만 8,000원 그럼 2억 8,000만원 중에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1억 2,400

○宣相善委員 1억 5,400 남았죠?

○土木課長 李宗哲 네.

○宣相善委員 그런데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 확보에 4억 6,300만원이 또 있네요?

○土木課長 李宗哲 네.

○宣相善委員 그럼 총 얼마입니까? 이걸 포함해서, 남은 금액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4억 6,000을 하는 겁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이 4억 6,300은 금년은 재해대책기금을 보면 확보 기금이 일반 예산의 수익금에 3년간 평균해서 8/1000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 '98년도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자라는 기금까지 확보해서, 나머지 기금까지 확보해서 나머지 계획을 다 해서 4억 6,300이었습니다. '97년도 현황을 보면 2억 500만원이고 '98년도 1억 5,000만원, '99년도

에 2억 8,000, 2000년도에 4억 6,300 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된 금액이 10억 6,800만원입니다. 집행현황으로 봐서는 작년에 1억 2,555만 8,000원이고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 금액이 3억 3,800만원 해서 토탈 사용금액이 4억 6,360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잔액으로 있는 건 6억 3,4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다음 183쪽 도로복구비 부과징수 및 굴착공사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돌아다니면 통신, 한전, 가스 등등해서 굴착 많이 하죠? 지금 아스콘 굴착허가는 몇 년 안에는 내줄 수 없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3년

○宣相善委員 3년입니까? 맞습니까? 3년 아닌 걸로 아는데,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도로를 신규로 개설한 지역은 3년이고 굴착복구한 도로에 대해서는 2년, 보도는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전기나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굴착허가를 내놓고 원인자 부담이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나요?

○土木課長 李宗哲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부과액은 징수액하고 미징수액이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과액이 저희들이 승인을 내줄 때 부과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착공 허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단 납부를 하고 유관기관을 착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로 하겠다 해서 부과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굴착을 못 하도록, 착공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굴착을 해서 미징수가 아니고 굴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宣相善委員 다시 설명해주세요.

○土木課長 李宗哲 승인할 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10억이면 10억 부과를 하는데 그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착공을 못하게 합니다. 이 나머지 차액은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후 복구 현장을 한번씩 돌아봅니까? 얼마나 잘 못됐는지 아십니까? 굴착했다면 침하가 되든지 아니면 고압 보도블록 같은 데 전부 다 흩트러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課長님! 굴착허가 내놓고 가서 점검도 하고 그럽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가끔은 나가서 굴착할 당시, 복구할 당시는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굴착을 하게 되면 원형상으로 복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연에 모른다거나 침하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이거는 앞으로 굴착허가를 해놓으면 복구가 잘됐는지 어떤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종묘길 가로등 개량공사, 가로등주 설치 청사초롱으로 된 거 1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됐네요?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만 단위면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단위가 100만 단위면 250억입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천단위입니다.

○宣相善委員 천원 단위 맞아요? 왜 그럼 100만 단위로 해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료 하나도 점검을 안 해요. 수감 태도가 어떻게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2억 5,000입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2,500

○宣相善委員 2,500이죠? 2,276만 4,000원은 이미 집행을 했네요? 이미 계약 다 끝난 거 아닙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네.

○宣相善委員 그럼 등당 250만원이네요?

○土木課長 李宗哲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등주 하나당 가로등 하는데 25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등주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생긴 겁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갓등이 청사초롱으로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 밑에는 가로등 설치 10번 해가지고 470인데 왜 위에 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집니까? 등주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등 하나 세우는데 250만원씩 보통 그래요.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그렇게 소요됩니다.

○宣相善委員 그렇게 소요가 됩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예.

○宣相善委員 어떻게 해서 소요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가로등주가 하나에 얼마예요?

○土木課長 李宗哲 등주를 저희들이 신설할 때는 굴착이라든가 복구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宣相善委員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남개로에 가로등 하나에 500만원씩 예산 잡았더라구요. 공사하는 것 봤어요. 땅 한 30전 파고 PVC 파이프로 묻고 단 몇 시간에 파서 다해요. 그리고 스텐레스 등주 세워놓고 그리고 둥그런 거 하나 해놓고 그것 하나에 500만원씩 예산 잡아놓고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장님! 옆에 가서 보니까 공사하는 것 가서 봤어요? 등주도 보고 어떤 등준가 봤어요? 정말 이것이 250만원 값어치가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그것은 주어진 대가에 의해서 모든 물가재료라든가 따라서 설계를 해서 도급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더라도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것을 많이 참고해서 기초의회가 움직여나가면 별 무리수가 없다고 보고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오전에 끝을 냅시다 얘기 했습니다. 지금 12시 딱 넘어섰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감사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는 소요시간은 몇 분이고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답변시간은 얼마고 그래서 보통 보면 15분이상 2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러고 돌아가고 난 뒤에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변해야지 한 위원이 두시간, 세시간 붙들고 얘기했을 때

○委員長 吳弼根 알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마지막에 돌아오는 위원은 그 날짜에 질문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위원장은 이 시간 이후에 질문하는 위원의 질문시간과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답변시간을 정해 주시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합니다.

○委員長 吳弼根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위원님들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질의시간을 20분 이내에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러한 당부를 드렸는데 잘 지켜지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宣相善委員 잠깐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李炯述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항시 질의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합니다마는 오늘 이것만큼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李炯述委員님께서도 평소에 보면 예를 들자면 북촌가꾸기 같은 것은 단골메뉴로 해서 30분, 40분 하는 것도 쭉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시간이 길어졌다고 지적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하고

○李炯述委員 宣委員을 보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吳弼根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이 좀 미숙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李炯述委員 우리 金福同委員이 한 시간이 48분이에요.

○委員長 吳弼根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4分 會議中止)

(13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종로관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많이 하죠? 빗물받이가 도로면 흐름보다 높아 가지고 물이 들어갑니까? 못들어갑니까? 도로보다 빗물받이가 더 높을 경우에 물이 그대로 순환하게 하수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답을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李炯述委員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라면 빗물이 잘 안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빗물받이가 도로면보다 낮아져야만 흐름이 가능하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맞습니다.

○李炯述委員 종로관내에 빗물받이가 대도로변 소도로는 두고 20m이상 도로폭 그런 곳이 우리 국장님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빗물받이가 높아서 하수로 안들어간다는 얘기를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높아서 안빠지는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있으면 고쳐야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李炯述委員 안국전철역에서 감사원 올라가는 쪽에 빗물받이가 도로면보다 더 높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 물이 온 도로에 범람해서 주택으로 들어가고 지하주택지로 빠져 들어가고 하는 일이 있는데 두 차례의 시정촉구를 했는데도 되지 않는 연유가 무엇인지 답을 한번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말씀하신 감사원 가는 길에 빗물받이가 도로면보다 높아서 배수가 안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조치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조치 후에 필히 답을 좀 주시고 비원 담을 끼고 올라가다 보면 넓은 폭이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그 부분도 역시 비만 오면 물이 한강이 됩니다.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포장을 할 때에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물이 고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도 종로관내에 여러 군데 있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李炯述委員 가회동에서 감사원 올라가는 도로 국장님이 재임 중에 가회동청사에서 경남빌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양쪽 도로변에 있는 전화, 전기, 지주선을 지하로 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05m 잔여구간에 전기 지중화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할 때는 기왕이면 그 지역이 좀 쾌적해질 수 있도록 전기 지중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경남빌라에서 동쪽편입니다. 감사원 개설부분에 가회동 1-79호 김태연씨 소유의 한옥이 이번 도로 접한 부분을 보상을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15㎡정도. 일단 그 집이 잘려나간 부분은 그 집에서 전부 수리를 한 마감공사를, 한옥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오늘 다시 올라가 가지고 확인해봐도 육안으로 봐도 도로가 완전히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집을 15㎡를 제거한 부분에 공사 마감한 부분에 꽤 도로로 돌출이 되어 있거든. 새로 뚫는 도로 도면을 보면 돌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도면에, 그런데 현재 1-79호는 분명히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후에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종로관내에 가판대 신문이든지 구두박스 이러한 것이 초기의 업자들이 그대로 등록된 업자가 있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현재 그대로 구두박스든지 가판점 주인하고 애초에 계약된 것하고 주인이 같은지 거기에 대한 답을 아는대로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李炯述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판점이나 구두박스 이것은 아까 宣相善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소유자와 바뀐 소유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그렇게 운영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이 동일한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해달라 이런 저희 요구가 있어서 이번 6월 10일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러한 각 구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그러한 조례가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상황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러한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李炯述委員 애초에 뜻이 없는 사람 생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 시도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래 보고 지금 현재는 몫 좋은 데는 5,000만원, 7,000만원, 1억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품화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 또 이게 당연하게 권리가 있는 줄 알고 건물 접해 있는 주인에게 아주 집단적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면으로 애초에 계약된 부분, 지금 현재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시고 지금 견인차 있죠? 불법주차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면 종로 구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 구세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李炯述委員 별 관련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인하게 되면 견인료가 작년 6월달 이후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체에다 저희들은 견인료 요청이 오면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 견인료를 지불해 주고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李炯述委員 황색선을 그어놓은 곳에는 주차가 안되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안됩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자주 느낀 점 인데 차를 황색선 안에다 주차를 하면 파킹을 하고 잠깐 비운 사이에 한 1분이 안되어 가지고 견인차가 와요. 어떻게 오는지 하여간 숨어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빨리 못올 정도로 와서는 견인해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동안 잠시 일을 보고 오면 차는 이미 견인해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구청하고 무슨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그러한 오해의 소지나 제3자가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업체에서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제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가급적 과태료 부과차량을 붙였을 때 바로 견인되면 이것이 견인업체와 직원간에 연계돼서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구정질문 할 때 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5분예고제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5분예고제가 존속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5

분예고제, 10분예고제를 시행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안합니다.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비원 담장옆에 용수산 앞에 삼각대 댄 부분에 주차를 한 2, 30대 주차할 수 있는 황색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차를 대면 순식간에 견인해가고 일부 차량이 오면 전혀 무관합니다. 그 동네에 인접해있는 사람들은 의혹이 많은 곳입니다. 황색선 안에 주차를 주민들이 잠깐 대면 견인해가고 견인해가고 구세수입에도 보탬이 안되고 황색선은 그어놨는데 거기에 일부 특수차량은 그대로 괜찮고 구세수입도 안되고 주민들 차를 견인해가서 견인업체에 보탬만 주는 그러한 지역은 종로구민들에게 보탬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그 지역을 황색선을 철폐를 하고 거기 동네의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으로 해서 구세수입도 되고 주민들의 교통체증도 덜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을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지역이 황색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색선을 그은 지역은 도로의 교통안전상 안전지대로 경찰서에서 관리 차원에서 선을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 지역을 주차라인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그 지역 문제를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입장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주민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炯述委員 그 지역이 차는 계속 주차를 합니다. 어떤 차는 단속을 안하고 힘없는 주민들의 차는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대단하게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대한 서면 답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弼根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崔康洵幹事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제가 배우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낌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 발이 맞아 가지고 그 어머니가 살림살이를 잘해 가지고서 그 가정이 자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창신동, 숭인동 붙이고 이렇게 무슨 법정동을 그렇게 많이 붙여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고 서로 이렇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신동, 숭인동도 불명한 동이 5개동입니다. 그러면 창신1동, 창신2동, 3동을 분명히 붙여줘야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를 보고 믿고 우리가 질문할 것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숭인동도 아까도 그렇습니다. 번지만 떡 해놓고 뒤에도 보니까 540 몇 번지를 갖다가 300번지라고 해놓고 헷갈리게 해놓으니까 서로간에 이것이 뭐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거기에 대한 불신감도 집행부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좀 몇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자료에 보면 '98년, '99년, 2000년인데 '98년도에는 IMF가 와 가지고 대통령께서 IMF에 우선 좀 배고픔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해라 해가지고 아마 선처를 베풀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숭인동에 가보니까 전국노점상협의회 사무실이 본부가 우리 종로구 숭인2동에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박박 깎고 아주 대단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아주 등심에다가 잘 먹고 차가 하나 올라온 것을 보니까 경남 울산 차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 큰일 났구나. 노점상도 그

래요. 차량이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어떻게 보도상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국장님 올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보도상에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런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차량이 보도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도 단속하는 것을 제가 못봤고 본 위원이 보면 입간판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장마철에 태풍이 안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태풍이 아닌데도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 가지고 쓰레기 바로 놓은 가판댄가 그게 넘어지면서, 애가 창신동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로구에서 치료비를 다 물어냈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이 허술합니다. 한번 단속을 안하고 본 위원이 몇번 전화를 하니까 한 두서너 번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崔康洵委員님께서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명에 숭인동, 창신동 기타 동명만 번지수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동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적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각종 사업명을 지정할 때에 가능하다면 무슨 동 몇번지 해서 위원님들이 구분하기 편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노점상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 서울시에도 노점 관련해서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줘서 앞으로 1년 이후에는 어떤 상당한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노점상이라든가 지적해 주신 차량 노점으로 인한 통행불편, 보도상에 차량이 올라가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 후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태풍에 관련해서 입간판이 소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에서는 주로 간선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과 연계해서 주요한 이면도로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국장님! 우리 위원들은 동네 돌아가면 굉장히 주민들이 아주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우리 창신동에도 보면 장애자가 양다리가 없어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로판매점이 시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판매점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崔康洵委員 그리고 좌판이라는 것은 뭡니까? 노점상 손수레, 좌판, 보따리,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판은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좌판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 위치에 있고 무엇을 깔아놓고 그 위에 노점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 거주를 안하고 있는 가로판매점이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아까 金福同委員님이 질의한 것이 반복됩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2건이 들어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저 멀리 망우리쪽에 산다 이거야. 그러면서도 우리 종로구에서 멀쩡한 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할 수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판대를 17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89년 노점상을 없애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상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1개 가판대는 '89년 이후에 신규허가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신규로 허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판허가를 할 수 없고 아까 李炯述委員님이나 宣委員님 말씀대로 전매, 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별개 문제로 해결을 강

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노점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15일간 대청소를 하고 창신동을, 동대문 밖 하게 되면 창신1동하고 숭인2동이 아주 왕산로 주변에 한 20만명이 왔다갔다 하는 인구밀집지역이고 상인들이 많이 다닙니다. 우리 창신1동만 보더라도 문구, 완구, 신발 등등 전국 도매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보따리 장사들도 많이 다니고 또한 우리가 2002년 월드컵도 하게 되면 외국의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길가에 말이죠, 쇠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을 하나 걸어놔요. 톡 치면 이게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뿐더러 거기 가서 얘기하면 당신들 말이야, 노점상도 관리를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현재 노점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은

○崔康洵委員 노점이 아닙니다. 점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점포에서 내놓은 돌출시설물이죠? 전반적으로 노점과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 저희는 적치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 열릴 때마다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수립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노점상도 말이죠, 시간을 지켜주고 거기다 좌판대를 평상시에 갖다놓고 내가 보기에는 권리금이 아마 왔다갔다 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점상도 그렇습니다. 비위생적인 것 생선장사들 소금물을 노상 뿌려 가지고 가로수도 죽어요. 누렇게요. 내가 그것을 동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우리 집앞을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중얼중얼하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그 아주머니가 그만두었는데 아마 올해까지 장사했으면 은행나무 죽었을 겁니다. 작년까지는 누렇게 낙엽이 져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요근래 와서 살아나는 걸 보니까 내가 물론 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아프지만 나무 한 그루 살렸다는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98년도는 118건, '99년은 88건, 지금 2000년도 5월까지 84건이고 그런데 기타는 뭘 얘기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기타는 포장마차 숫자입니다.

○崔康洵委員 엄청나게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崔康洵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분의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과태료 미납과 책임보험에 대한 미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저희들이 4월 말 현재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吳錦南委員 과태료가 아니고 검사미필이라든지 검사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그것이 자동차과태료에 포함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 관계는 자동차 과태료가 있고 책임보험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과태료는 정기검사 미필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명의나 주소변경을 해태한 게 있고 그 다음 봉인 탈락이라든가 기간이 경과됐다든가 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는데요 정기검사 같은 것은 최소 2만원에서 많은 것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신고라든가 봉인탈락 같은 경우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책임보험은 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전산자료를 뽑으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이런 미수납액에 보이지 않는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태료가 숨어있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각과에서 발굴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주셔야만 그러한 돈이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액수가 꽤 많습니다. 우리 課長님이 거기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자료도 주시고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172페이지 맨 하단 금년대비 '99년 부과건수가 많은 사유는 돌출간판점용료 제도개선으로 후납제에서 선납제 2회로 부과 6월과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납제로 하게된 이유와 선납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의 민원은 없었는가? 또 이익된 점과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있으셨으면 말씀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이 간판점용료를 후납제에서 선납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는 사항은 이것이 후납제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사가 안돼서 폐업하고 갈 때에 후납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납제에서 선납제로 변경함으로써 그러한 누수되는 세수를 일부 막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선납제로 개선을 했고 저희들이 후납제에서 선납제로 개선함으로써 작년도에는 6월 달과 12월 달은 2개년도 분이 동시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 부과되던 것이 두 번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부과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전홍보를 철저히 해서 작년도에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큰 무리없이 선납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선납제로 인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문제는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민원문제인데 그 민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무리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선을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오늘 3일째 감사를 하면서 가능한한 선납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서 민원이 도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선납제로 함으로써 세수에 미납 세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맨 위에 도면을 보면 시수입, 구수입이 ㎡로 되어 있습니다. 局長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9년도 8월 이후에는 ㎡ 개소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도 ㎡ 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로는 환산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료를 보면 공중전화 부수설치는 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기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혼동되게 하셨는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는 면적으로 넣고 86은 개소로 넣었는데 혼동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85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가 올 때 그 양식이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86항은 양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개소로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吳錦南委員 의회자료에 맞추지 말고 개소로 여기도 환산을 해줘야 편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176페이지 지금 다섯 군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방채 50억에 대한 집행내역, 도로개설 현황. 지금 현재 일부 보상도 나갔고 일부는 안 나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무관리는 현재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보상 못 나간 금액에 대해서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보상을 시행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예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이 문제는 보상이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완결되는 시점에서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문제는 현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吳錦南委員 집행액 중 액 20억 정도가 집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20억에 대한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량 2억짜리를 1년치로 예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6개월치로 예치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된 지역도 있고 보상협의가 안돼서 몇 개 사업은 수용재결을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그 금액을 공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비 잔여 분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종결 또는 준공되는 시점에서 그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시점에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일반계좌에 있겠네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네.

○吳錦南委員 다음 177쪽 작년도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을 비롯해서 사전에 공공근로자와 함께 곳곳에 염화칼슘을 담아놓을 수 있는 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래를 담아놓고 또 부분적으로 염화칼슘도 뿌렸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 각 동별로 염화칼슘 지역의 소골목에 염화칼슘통을 만들었나 하고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타동은 그런 데가 없다 하는 얘기를 동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동장한테는 우리 局長님이나 區廳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일선에 나가있는 동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염화칼슘이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서 서울시에서 타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닙니다. 각 구청별로 구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구매하는 장소가 1개회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독점사업으로 해왔는데 업체가 2~3개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단가를 싸게 구입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은 즉시 구입할 수가 있겠네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은 179쪽 우리 宣相善委員님께서 저희 지역의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9년도 말인 12월에 정말 월동기인 겨울에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봤고 또 주민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넣고 감사원에도 민원을 넣고 여러 군데 넣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어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민원을 넣고 하니까 다시 재포장을 해주겠다고 답변이 왔다. 그래서 일요일날 공사하는 현장을 제가 한 서너 시간을 그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사를 할 적에 아스콘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높이를 아주 낮게 했어요. 그런데도 월동기가 되다 보니까 부실이 됐어요. 그후 4개월 동안 계속 민원을 넣고 구청에 얘기하고 주민 본인이 힘닿는데 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감사원에 통보하고 감사원에다 질의를 넣었다고 그런 얘기를 구청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재포장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높이를 재면서 일을 시행시켰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그날도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봤지만 일을 시켰으면 구청 담당이 현장에 나와서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업자한테만 재시공해서 맡겨놓으면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거기가 도로상이 건물보다도 높아집니다. 자꾸 아스콘을 씌우고 또 씌우다 보면. 그런 민원을 현장에서 보고 관리하는 분이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관리자는 없고 시행자만 있으니까 도로를 복구해놔도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꼭 현장에 직

원이 나가서 살펴봐 주었으면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재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안 해도 된다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면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으십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土木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재포장을 하게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사항에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포장노면의 상태가 나쁘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상당히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작업지시는 1월 25일경에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1월 달은 상당히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3월 이후 기온이 회복된 이후에 하자 해서 4월에 높이가 또 재포장을 해서 높아지니까 우리가 평삭작업을 하고 재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 사정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구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앞으로 유의를 좀 해주시고 182페이지 맨 하단 도로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627만 5,000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만 변경사유가 폐기물 잔토처리 위치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과연 설계시작부터 감안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것은 공사를 하시는 분이나 감독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성의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課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당초에 설계 상으로서는 모든 점토처리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점토를 싣고 김포매립지로 갔는데 김포매립지에서는 도저히 이런 폐기물은 받을 수 없다 해서 빠구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파주 쪽의 재활용업체로 가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리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한 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183~5페이지 도로복구비 부과징수 및 굴착공사 내역에 대해서 미징수액에 대해서 총괄과 현년도와 그 다음 장 2000년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비 부과징수 해서 2000년 5월 30일까지 총괄과 현년도 미징수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土木課長 李宗哲 아까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굴착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굴착복구비를 내고 할 때 그때서 착공하도록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굴착승인 요청이 오면 6월 22일~7월 22일 한달 동안은 우기로 해서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저희들 굴착승인을 하고 7월 이후로 굴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줍니다. 하면서 굴착복구비를 고지를 합니다. 하는데 납부가 착공할 당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주차장부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의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해서 주차장에 차 1대가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3~4대 세울 수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100평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적은 대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4~5대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라면 부지가 1대당 4,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부지가 아니고 1,000~1,500만원이 대당 들어가는 부지를 사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은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주차장부지를 활용해주셨으면 하고 이 자료에 보면 204페이지 주차장 부족에서 오는 주차장 해소를 위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주차장 설치 대책, 과다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의 합리적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오전에 玄壽漢委員님께서는 적정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고 吳錦南委員님께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다면 소규모 필지에도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자면 주차장부지에 어떤 법적 규정이나 몇 평이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영주차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자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소규모 필지라 하더라도 그 주위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지역의 특성이나 주변현황을 고려해서 주민에게 유리하다면 유리한 방향으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은 도로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金福同委員님 지역인 5~6가동의 톱뉴스가 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만 종로선이나 청계천선을 보면 종로 쪽에는 꽃 파는 노점상들, 청계천 쪽은 마네킹이나 가방, 모자, 우산, 등 산장비 할 것 없이 전부 현재 인도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그대로 둬야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어떤 부과를 하고 있는 건가? 또 더 심하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옆 차도에는 차도 못 세우게 합니다. 차도 못 세우게 자기들이 자리를 점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대로 놔둬도 될 건가 하는 것을 정말 짜증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청계천 쪽에 가면 쥐색으로 된 텐트가 2~3층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허가지요. 이러한 속에서 주민들은 조그마하게 있는 것은 전부 발굴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로5~6가 쪽에 있는 노점상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문제가 또 차도까지 물품을 내놓으면서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課長님은 1주일에 한 번 이라도 답사해보셨는지 課長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노점상 단속하는 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5~6가 나무가게, 꽃가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노점상연합회가 인사동 보존회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노점하겠다, 하지 마라. 그래서 인사동 보존회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한 50여 명이 근 1주일 동안 농성을 했습니다. 그 50여 명을 철거하기 위해서 경찰병력 3개 중대가 동원돼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난 후에 바로 저녁에 또 쳤습니다. 그 다음 2차로 또 3개 중대가 동원해 가지고 그 철거 과정에서 노점상 상인들이 단속원들한테 오물도 뿌리고 그래도 현장 경찰들이 그걸 보고만 있습니다. 저희 局長님께서도 그랬고 왜 현행범을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지 않느냐고 하니까 저 정도 하는 거는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당하고 만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계 그거는 단속해야지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상 인원 상 문제가 있고 또 노점상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저항합니다. 저희가 가서 실어오면 뭐합니까? 그 이튿날 또 영업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킬 수도 없고. 노점상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98년 9월 4일 부산발언에서 IMF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노점상 단속을 자제하란 말씀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 5~6가 金福同委員님께서 장애인을 단속해달라고 하셔서 파출소 옆을 단속했습니다. 십여 개를 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심을 먹고 오는데 장애자들이 우리 사무실은 물론 복도까지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단속하는 거는 쉽지요. 그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委員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課長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인도까지 점령하는 것은 괜찮은데 차도까지 점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음은 자고나면 중간중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통신주라고 해서 이런 쇠파이프가 동네에 섭니다. 과연 통신주는 어떻게 보면 유선방송도 거기에 선이 걸려 있고 전화캡도 걸려 있고 과연 이것은 구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부에서 허가를 얻은 거라서 소리 없이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吳錦南 副議長께서 말씀하신 통신주를 이면도로에 하는 사항도 구청 토목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허가없이 설치한 것이라면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허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吳錦南委員 작년 연말에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감이 생겼어요. 삼청동에 감사원 올라가는 쪽에 러시아대사관 공관이 있죠? 그쪽에 러시아입니까? 어디입니까? 베트남이죠.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모이사 집 앞까지 포장공사 그게 상당히 삼청동 주민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구청 청장님까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는 양쪽에 물받이를 해서 포장을 하고 신주등을 세워서 하는 것까지는 O.K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차량만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쇠로 된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0여 개 되는데 그것이 말썽이 되니까 또 60여 개를 잘라냈어요. 과연 이 예산이 처음 시공할 때 작년 연말에 했을 때 그 시공이 예산이 투입돼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됐으면 그때 당시 예산이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간에 투입이 돼서 일사천리로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쇠말뚝 봉이 몇개월 후에 서가지고 그것을 다시 잘라냈다는 말이죠. 지금 그쪽에 가서 18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모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것을 어느 분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종로구의 세수가 그렇게 쓰여져 가지고 총 집행을 하고 계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또 관리감독하는 위원님들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40분이 경과되었다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답변만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말씀하신 삼청동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일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를 6m로 확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확장한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주차로 인한 도로기능이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일부 주민은 도로개설 후에 도로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무단주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일부 입장에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부 보행자를 위한 봉을 박았습니다마는 주차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을 일부를 제거를 하고 주민과 모든 협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14개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한다면 그 지역의 여타 민원이 없겠다 이런 종합적인 결론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가 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로개설 지역에 여타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부연설명을, 거기 철말뚝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것 하나 박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한 200만원 들었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하나에?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전체 60여 개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0여 개를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설치했었는데 주민의 주차요구가 있기 때문에 봉의 일부를 제거하고 현재 주차구획선을 14개를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반 도로상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가지고 봉으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에 11만원인가 12만원인가 먹힌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무쇠라서 더 쌉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질문요지가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질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연도별 현황이 '98년도, '99년도, 2000년 5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 崔康洵委員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 종로가 아름다운 거리가 되어야 될텐데 '99년도 연말쯤에 아마 모방송국에서 제일로 걷기가 불편한 거리가 종로거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점상이 길을 막기 때문에 아마 걷기가 불편하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99년도에 보면 1,431건에 기존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상에다가 2000년도에 1,207건이 발생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준 숫자입니다.

○丁炳煥委員 준 숫자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물론 노점상 하시는 분이 생계가 어려워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권리를 갖고 양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점상도. 그런 문제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걷기 좋고 아름다운 종로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한번 봐주십시오. 27쪽에 보면 공사수주건수 및 공사 시공회사명이라고 해서 하단에 연번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계약 해가지고 당초에 낙찰금액은 3억 9,054만 2,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공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49% 인상한 1억 9,449만 6,000원을 인상할 필요가 꼭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재무과에 의해서 낙찰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국에 별도의 입찰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土木課長 李宗哲 丁炳煥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는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한 것은 토목과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한 사유는 당초 예정했던 복구 물량이라든가 보수 물량이라든가 이 자체에 한정했던 것보다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 공사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공사비를 증액해서 사실상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현재 지시사항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물량은 단가별로 공정별로 단가를 정하고 대충 1년에 얼마, 얼마 할 것이다 금액을 적어놓고 해서 그러한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공사비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대로 집행해왔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지시되는 것은 당초에 3억이면 3억 계약된 물량만 집행하고 나머지 발생한 물량이 있거나 예산이 있을 때는 별도 다시 발주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계약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추가 물량이 있다든가 해서 예산 집행할 때는 다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丁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서울시에서 관내 도로보수 할 수 있도록 3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약규정이 바뀌어서 10월달부터 적격심사제로 바뀌는 바람에 입찰을 하려면 최소한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배정돼서 별도의 시공회사를 선정하기가 연말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은 해야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 업체에다가 변경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지난 연말에 입찰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丁炳煥委員 공사 사안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공사비를 인상해주기 위해서 설계변동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 金福同委員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돌출간판 도로점용 허가건수 및 부과징수 현황이 무허가 분에 대해서 부과가 9,311건에 부과금액이 12억 8,897만 2,000원인데 징수가 2,571건에 3억 4,710만원이었는데 담당과장님! 몇 %나 징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26.9%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진하게 징수가 되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작년 '99년도에는 6월달에 '98년도 거를 부과를 했고요 '99년 11월달에 한꺼번에 2년치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다소 징수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환산할 때는 26% 징수 물량인데 우리 과장님은 26.9%를 징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정확한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이러한 체납된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감사자료 2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등록세 미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계가 49,150 이것이 금액입니까? 개수 수량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대수입니다.

○丁炳煥委員 미납현황이 대수라고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그런데 이것이 제목이 이렇게 왔는데 미납은 밑에 적어드린 대로 등록세는 전부다 차량 살 적에 납부를 해야만 등록을 시켜주기 때문에 등록세는 체납이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방지턱 설치 및 철거현황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대부분 출마할 때는 뭐뭐를 공약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마치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공사를 하면서도 의원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방지턱을 한다 뭐를 한다 하는데 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왜 의원한테 알려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과장회의나 직원회의 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다시 지적이 된다면 담당을 책임 짓는 팀장까지 문책한다고까지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소소한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까지 관내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착공시기 또한 공사 완

료시기 이러한 문제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꼭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하는 줄은 알고 넘어가야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2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자금투자 및 금융예탁금 현황을 아까 오전에 金福同委員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 예치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했는데 이것도 재무과에서 관장하십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통장이나 모든 것을 배정만 건설교통국으로 했지 모든 예치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자금관리요.

○丁炳煥委員 거기에 이자 발생이다 뭐다를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이자 발생한 수입은 저희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는 됩니다마는 실제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丁炳煥委員 잘 알았습니다.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및 범칙금 시효결손 처분현황 밑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있습니다마는 부과만 하고 여러분들이 징수하는데 해태하고 그 시효가 지나면 결손을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징수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많은 징수율을 올려야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각 과에서 최대한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생각은 않고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결손을 않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바랍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각 동에다 몇 건을 단속하라고 배시를 합니까? 스스로 각 동에서 불법주자를 단속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배시하지 않습니다.

○丁炳煥委員 배시하지 않으면 종로는 전혀 실적이 없네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지금 동기능 전환문제하고 주정차 단속문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금년 1월 1일자부터 주차단속원을 전부 구 본청으로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현재 실적누계에서 제로로 되어 있는 데는 동에 단속원이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동에 단속원이 없이 우리 구에서 나가서 단속을 한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왜 다른 동에는 단속원이 있는데 유독 몇 개 동에는 단속원이 없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단속원이 총 54명입니다. 거기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도 정년퇴임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원이 거의 정년퇴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년퇴직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인원을 파견하지 않고 어차피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동 업무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직원들은 100% 구 본청에 흡수를 했고 만약에 9월달에 동기능을 확대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인원을 흡수할 예정입니다.

○丁炳煥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차단속 스티커 서손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28,775건, 2000년도에 10,255건인데 이것은 봐주기식 스티커를 떼다가 서선처리한 것 아닙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건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속과정에서 이미 스티커를 기재를 해가지고 붙이려고 하는데 운전자가 나와서 할 경우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것 때문에 애로가 솔직히 많은 사항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역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오전에 아, 오후인가 李炯述委員님이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마다 우기철을 맞아서 빗물받이가 지면보다 상당히 높아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장마철을 맞아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제가 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위원장 얼굴을 보니까 빨리 끝내라 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弼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짧게 5분만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써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를 말입니다. 우리 종로구 견인차가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입니다.

○金福同委員 견인차가 종로구에 올 때는 주차, 견인차를 둘만한 차고지를 마련하고 하지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사람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견인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차 세워놓고 전화 걸면 빨리 가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남의 차를 끌어가고 남의 재산을 끌어다놓고 부과를 시키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우리 종로구에 중앙지라서 전용차선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마포 저쪽에는 전용차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차선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버스를 진정으로 몇 대나 금년 5월달까지 단속했습니까?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데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31,831건을

○金福同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버스는 안들어갔죠. 일반차량이지 진정으로 버스단속이 위반할 때는 많이 하고 있는데 버스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단속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나름대로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몇 쪽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버스가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단속요원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은 곳에 숨어 가지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214페이지를 봐주시면 상단에 전용차로 위반 130건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차가 버스입니까? 5개월 동안 145대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130건입니다.

○金福同委員 130대, 그렇다면 다른 차종은 엄청 많다는 얘기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버스전용차선을 움직이는 버스만은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吳錦南 副議長께서 우리 동네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정말 체면상 하도 여러 번 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결국 金福同委員을 움직여서 또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동네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상인들 나름대로 애로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5,6가동이 관내에 있는 노점상들이 그런 줄 모릅디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저기를 해서 조그만 상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자기 가게에 물품 놓는 것보다는 밖에다 진열하는 물건이 훨씬 많습니다.

청계로를 가보면 청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계도 또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으니까 위에서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더라구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데 시간이 넘을까봐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 課長님, 關係公務員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못했던 것 있는데 감사자료 187쪽에 보시면 李宗哲 土木課長님! 답변해 주세요. 가로등을 보면 말이죠, 여기서 쭉 일일이 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99년도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에 9,383만원입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938만 3,000원

○宣相善委員 아, 938만 3,000원 854만원에 계약이 되었군요?

○土木課長 李宗哲 예.

○宣相善委員 그런데 MFB를 어떻게 교체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몇 개소만 하는 겁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宣相善委員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전차단기는 가로등별로 해서 1개소당 1개 설치를 하는데 402개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宣相善委員 402개입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예.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곳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土木課長 李宗哲 신설하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매년 이 정도로 한 400여 개씩 신설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그 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3,60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宣相善委員 課長님! 가로등이나 이것은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자리가 잡혔죠? 설치할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400여 개씩 늘어납니까? 이제는 보수, 관리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지 신설하는데 400개 늘었다는 거죠?

○土木課長 李宗哲 이건 기존 가로등에다 누전차단기를 신설하는

○宣相善委員 방금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400여 개를.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제가 답변드린 것은 가로등을 신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전차단기 400여 개를 시설했다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는 거지

○土木課長 李宗哲 기존의 교량에 누전차단기를 다시 시설하는 거죠.

○宣相善委員 아니 가로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전차단기를 어디다 달아요? 가로등이 있으니까 다는 거 아니에요?

○土木課長 李宗哲 가로등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옛날에는 거기 가로등에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전에는 누전차단기가 기존 가로등에 없는데

○宣相善委員 가로등은 스위치는 뭘로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스위치는 남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럼 개별적으로 전부 누전차단기를 단다구요? 그럼 타이머는 어떻게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누전차단기는 개별적으로 달고 타이머는 무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달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도는 402개소를 설치했다 이 말씀입니다.

○宣相善委員 계약은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입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입찰입니다.

○宣相善委員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한군데에서 일괄해서 공사를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402개소는 일괄해서

○宣相善委員 아니 위에 보면 '99년도, 2000년도

공사 보면

○土木課長 李宗哲 개별적으로 입찰봐서 하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입찰을 하다니요? 단가가 900만원, 1,000만원 이하도 전부 입찰을 해요?

○土木課長 李宗哲 네. 개별입찰입니다.

○宣相善委員 몇 개 업소입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몇 개 업소가 아니고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낙찰되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7개 업소하고 계약했다는 거에요?

○土木課長 李宗哲 응찰한 회사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별로 해서 다 입찰을 봤다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각 동별 보안등 수리업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무악전기가 7개 동을 맡았네요?

○土木課長 李宗哲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무악전기가 어디 있어요?

○土木課長 李宗哲 소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宣相善委員 한 업자를 이렇게 계속 계약을 해도 됩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보안등 수리는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宣相善委員 실정에 맞는데 무악전기 소재지가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그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무악동도 있고 교남동도 있고 숭인1동도 무악전기가 있는데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업체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서쪽에 무악동, 교남동도 있고 동쪽에 숭인1동도 있는데 무악전기가 7개 동을 다 맡고 있어요? 소재지가 어디에요?

○土木課長 李宗哲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정에 밝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宣相善委員 실정에 밝으면 한 업자한테 계속 주면 되겠네. 영구적으로 계속 주면 잘 하지요. 좋습니다. 交通指導課長께 묻겠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주차표시를 해야 되지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宣相善委員 29m에 하나씩 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交通行政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9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일률적으로 죽 있는 29획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우리 노외 공영주차장이 179개소라고 한 것은 한 장소에서 20구획씩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장애인 표시면 수가 노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구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상동에 있는 우리 노외 공영주차장에 2면 그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노상에는 20구획 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군데가 되고 해서 이 앞에 총구획 수를 20으로 나누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宣相善委員 아니 3,981구역에서 장애인 표시가 된 면수가 19개밖에 안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그렇습니다. 지금 21면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장소에서 20구획이 넘어야지만 장애인용을 1구획씩 설치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한 장소에서 구획선을 긋는 것이 20구획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애인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1~6급 정신장애, 청각장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타 42건은 뭡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아까도 다른 委員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이 자료 자체가 원래 저희 과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세무2과에서 받았는데 이 기타 내용은 언어장애, 만성신부전증 등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宣相善委員 다음 206쪽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안내판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정표시, 방향표시 해서 193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이정표시는 대로의 간판에다 크게 2~3m 해가지고 어디가 몇m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방향표시는 화살표로 직선으로 되든지

○宣相善委員 그런데 이정표시가 3개밖에 없나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저희한테는 3개밖에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큰 대로변이 있잖아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우리한테는 방향표시가 많지 이정표는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3개 있는 이정표시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아닙니다. 전체가 시예산으로 한 겁니다. 이건 금년에 설치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총 현황입니다.

○宣相善委員 193개 전부 시비에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다음 '99년도 고발 5건, 정비지도 6건, 행정지도 33건하고 금년도 5월 말까지 12건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가 있나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우리 종로에 현재 약 40여 개소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자동차정비업소가 크게 1급, 2급 그리고 부분정비업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카센터라는 것이 부분정비업입니다. 우리 종로에는 부분정비업 외에 1급, 2급은 허가가 나올 수가 없구요 그래서 그 대상이 정비면적이 50㎡이상을 확보해야만 정식 허가정비업소가 되는데 그 50㎡ 확보하지 못한 데는 지금 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 42개소인가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과징금 부과현황은 안 나와있네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러니까 지금까지 1건한 겁니다. 거의 무허가정비업소가 할 수 있는, 또 무허가정비업소가 할 수 있는 차량정비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거의 고발이나 이렇게 되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공익요원이 주차위반 과태료 딱지를 떼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단속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102명을 활용하고 있나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6월 28일 현재 100명입니다.

○吳錦南委員 여기는 102명으로 나와있네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건 5월 말에 가까운 겁니다.

○吳錦南委員 217페이지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타터 명륜동하고 숭인1동은 공익근로요원이 없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구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吳錦南委員 대체적으로 각 동에서 한 명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들은 혼자 다니면서 주차스티커를 발부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거기에는 공익요원 2~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이 자료는 뭡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217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익요원은 빠지고 단속원만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건 방범원입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吳錦南委員 단속요원은 현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여자 단속원은 전부 구청에서 흡수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아니 그거보다도 자료에는 안 들어 있다 이거죠. 공익요원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공익요원은 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요원과 단속요원까지 해서 세 사람일 경우에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한 사람일 경우에는 아예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배정을 적절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종로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노상 폭이 몇m까지를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복궁역에서 사직터널로 나가는 35도로도 우리 종로구에서 단속을 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吳錦南委員 경복궁에서 청운동 올라가는 쪽도 우리가 단속을 하죠?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네.

○吳錦南委員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20m 이상은 우리 구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 걸로 아는데.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잘못된 겁니다.

○吳錦南委員 그래요? 그럼 내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경복궁역에서 청운동 쪽 올라가면 보험감독원 후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저도 차를 몇 번 세워 가지고 청운동에 관한 공익요원들이 와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서있는 차는 공익요원이 차 문 한쪽을 열어 놓고 소리를 지르면 바로 나옵니다. 공익요원이 지나고 나면 차가 다시 또 서요. 또 신고를 합니다. 방금 갔다 왔으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구에도 이야기를 했고 파출소에도 신고를 했지만 파출소는 거기하고 어떤 사업상 연관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지를 안 떼요. 스티커 발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도 지나가는 차가 항상 있어도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아. 문을 한쪽 열어놓으니까. 5분 예고제보다도 더한 거죠. 그거는. 1일 예고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고가 들어오면 규명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운동에서 신교동간 15m 도로에 많은 인원이 오고 가는데 깜빡등을 설치해달라고 거의 2년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행정과장님 권한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망을 얘기해주세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아직 완전히 개통이 안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경찰서에서는 도로가 완전 개통이 돼야만 그때 교통량을 봐서 적정한 장소에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 횡단보도를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몇 개 설치했는데 경찰서 소관사항은 아니니 계속 완전 개통식까지 기다리라는 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여기 배화전문대 있죠, 배화여중·고등학교 있죠, 매동국민학교 등 아주 다양하게 다니는 길입니다. 물론 저보다도 우리 課長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시도록 해주시고 지금 주·정차과태료 실적 범칙금 시효결손에 대해서 다른 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태료가 범칙금을 지금 현재 '91~94년도까지 실효결손이 처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처리를 한 겁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그 분의 재산 어디에 압류를 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우선 1차로 당해 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吳錦南委員 다른 데도 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차량 외에 저희들이 고액으로 딱 1건 체납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대체압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 금년 5월 달에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만 주차단속을 100건을 하면 실제 종로구에 차적을 갖고 있는 차는 약 7~8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타구나 타시·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체압류가 쉽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 局長님이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조기채권 확보 징수율을 제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지 않고 자동차에만 압류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자동차를 11년을 타고 있는데 차에다만 압류를 하면 예를 들어 주차위반 과태료가 저한테 100장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법령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차 1대 가지고 10~30년 타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스티커가 100~300장 있더라도 3만원도 안 가는 자동차에만 압류가 돼 있다 이겁니다. 누가 과태료를 내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것을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라도 만들어야만이 자동차에 대한 부과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도 만약에 이런 결손처분이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의 특별회계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의 체납액이 시세구세 해서 얼만지 아십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얼마정도 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주차위반과태료가 182억입니다.

○吳錦南委員 교통행정과에서는 3억 4,400만원 정도 되네요?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이건 일반회계입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저희 등록계에서 부과징수 하는 것은 일반회계입니다.

○吳錦南委員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차위반 차량들이 과태료를 잘 내지 않는 이유를 설문조사 해보셨습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하지 못 했고 표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시청에서 파악한 거에 의하면 우선 과태료 금액이 작다. 가산금이 없다.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하고 틀려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기가 지나도 똑같은 금액을 낸다.

○吳錦南委員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그렇게 합니까?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내방객에게 구두로 물어봤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지요. 세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交通指導課長 宣圭景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이 끊겼는데요 세 번째가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니까 당장 안 내고 쉽게 말하자면 끌 데까지 끌어보겠다 이런 감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칙금 시효결손 처분을 하려는 생각보다도 법령을 고쳐서라도 10~20을 타더라도 다른 재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야만 결손처분이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작년 연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직동 262번지 뒷골목 포장 130m, 폭이 한 5m되는데 아스콘포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주민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장님도 저쪽에 계시는데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사람 옷만 100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100결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파고 해서 101결이나 102결이 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도로보다 그 도로가 아주 깨끗하고 좋아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土木課長 李宗哲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일찍 저희들이 포장준비를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도로정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예상할 때는 한 4~5월 초 정도면 포장이 될 거다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예산제도가 바껴서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구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정보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했더라도 다소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6월 30일까지 하도록 작업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교통행정과에 묻겠습니다. 볼라드 차량금지구역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현재까지 볼라드 설치한 거는?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그게 지금 사직동사무소 앞에 교통 위험장소라고 그래 가지고 설치한 게 있고 사직터널 빠져나가서 금화터널로 나가는데 거기에 많이 부서진 게 있어서 정비를 몇 개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볼라드는 세종문화회관 앞에도 있고 금년에 몇 개 설치한 게 있는데 어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하나에 단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신호봉같은 경우는 10만원

○宣相善委員 신호봉 하는 게 아니고 볼라드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볼라드가요, 개당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는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에 3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종로에 대부분 보면 인도 위에 차량이 올라오고 하는데 지금 성북구나 동대문에 가보면 볼라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좋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종로에 보면 해야 할 곳에 하지 않은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산 잡아서 하겠다면서 하지도 않는 예산 뭐 하러 계상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있고 또 다른 구하고 자꾸 비교가 됩니다마는 물론 도로변의 휀스 친 것은 원칙은 않습니다. 하도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휀스를 치고 하는데 역시 동대문구나 성북구에 보면 우리 숭인동도 보면 택시가 아무 데나 서거나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휀스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종로에 들어오면 휀스 된 데가 없어요. 무단횡단 아무 데나 정체되는 구간도 택시 서 가지고 뒤로 러시아워 때 뒤로 쫙쫙 막히고 하는데 그거를 해달라고 해도 하지를 않아요. 이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생각 좀 해보시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볼라드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가서 다시 일제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휀스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이 있어 가지고 종로쪽 교통대선공사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공사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 그때 아마 많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宣委員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종로 전체 동에 꼭 해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회에 시작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金福同委員님께서 너무나도 보안등 밑에 보조등에 대해서 예찬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리렵니다. 우리 혜화동로터리에서 구민생활관 간에 도로가 한 500m 될 겁니다. 가로수 위에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전혀 암흑가입니

다. 우리 혜화동이. 그래서 金福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등을 중간에 달아서 혜화동이 좀 밝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검토해보겠습니다. 혜화동로터리 주변에 20등을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委員長 吳弼根 밑으로요? 보조등을 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별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거기가 너무 많이 어둡습니다. 거기 와보시면 너무 침침해 가지고 다니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丁炳煥委員님께서 동네 공사가 있을 때 구의원에게 꼭 연락을 해서 좀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제부터 그런 시달을 했습니까? 잘못되면 문책을 하고 하겠다는 지시를 언제부터 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금년 사업에 대해서 몇몇 구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 팀장회의 때 이 문제를 강력하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된다면 팀장까지 문책을 하겠다

○委員長 吳弼根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지시를 했는데도 그 시행을 안한 과장님은 문책을 받아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弼根 그 문제는 저나 과장들이 아무튼 구의원님한테 앞으로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는 소소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국장님! 감사 때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돼요. 제가 구의원 한 지가 2년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혜화동에 이번에 도로를 넓히는 공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보니까 여기를 전부 뜯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철거하고 나서 저한테 한 5일인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못봤습니다. 거기를. 아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길을 넓혀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를 넓혔는지 몰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지시만 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시행이 안됩니다.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사가 안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배가 안된 것 같고 신경을 써 가지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네에 하나라도 공사를 더 가져가고 싶은 것이 의원의 심정입니다. 모든 공사가 안배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평을 위하여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9分 會議中止)

(15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해드리겠습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吳弼根입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방의회의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연이은 감사일정에 생업마저 지장을 받으면서 고생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감사는 11월 정기회의 시에 실시되던 것을 6월 1차 정례회의로 변경 시행된 후 첫번째 시행되는 감사로 작년 감사이후 6개월만에 시행하게 된 점과 하절기 무더운 시점에 시행되는 점등이 작년과 크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대상의 축소나 감사환경의 변화 등으로 감사효율의 저하 등이 우려되었으나 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의회가 구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구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가급적 이를 지양하고 정책개발과 집행의 타당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구민의 소리반영과 후속조치 등 구정의 큰 흐름을 바로잡아 가는데 감사의 중점을 둔 점을 상기하면서 금번 발견된 행정의 오류 등은 자체적으로 시정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파악한 정책의 오류나 예산의 편성집행, 효과 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파악한 정보는 연말 예산 심의시나 평소 의정활동의 폭을 넓혀나가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의 장이 지방자치 제3기 제3차년도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세기의 출발 선상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운명체로서 격의 없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민의를 파악하고, 서로 고민하며, 새로운 종로 발전적인 종로를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는 광장이었다고 이해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격한 지적이나 질책 등은 구정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관계 공무원들은 이해하시고 이번 기회가 미결도 정리하고 추진업무도 재점검 재평가해보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구정의 단면들에 대하여 국별로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1,000여 직원이 1년여에 걸쳐 처리한 광대한 업무를 수일간에 걸친 감사로 단죄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 싹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의 납부방법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부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를 정함에 있어 과소책정이나 과대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한 현황 분석이나 예측을 통하여 적정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하고 세 번째로 관내 도로개설 공사시에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등을 행함에 있어서 측량결과에 대한 불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 지적측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네번째로 과년도 체납세가 166,000건에 440억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 정의차원에서 현장 출장 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서면 독촉 등의 안이한 징수대책으로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구세입 예산을 자금 집행계획에 맞추어 1개월 내지 12개월 단위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치운영하고 있는 바, 3개월 이상 예치자금의 이자는 월별수령을 지양하고 복리 금리가 되도록 만기시에 일괄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여섯 번째로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88년 4월 30일 시·구재산 분류방침에 따라 구유화해야 될 재산이 다수 있는 바, 이의 구유화 작업이 미진하므로 이를 적극추진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구정홍보를 위한 현수막등 계약 현황을 보면 '98년 이후 총 333건을 수의계약 처리하였고 또 대명기업, 대명휘장등 특정업체만 독점계약한 사실이 있는 바, 특정업체 독점사례도 시정해나감은 물론 현수막을 통한 홍보정책을 축소하도록 하고 여덟번째로 '99년부터 금년 5월까지 사무용품비로 2억 4,000여 만원이 지출되었고 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무용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련 예산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홉번째로 '99년도 우리 구의 건설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은 총 81건의 공사중 3월에 9건, 4월에 23건, 5월이후 49건으로 되어 있는 바, 우기대비 공사도 3월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공사는 계약기간을 3월 이전에 체결하여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열번째로 지방세 과오납의 원인이 50%이상이 관계공무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착오 부과로 판단되는 바, 행정오류를 최대한 줄 일 수 있도록 검정단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열한번째로 혜화동, 숭인2동 청사부지 등은 서울시나 교육위원회 소유로 등재되어 있어 동 청사의 구유화가 시급함으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나 우리 구 전체의 66.6%에 달하는 비과세지가 있는 어려운 점등을 내세워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 구입하거나 양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안전지대나 가로공지등에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때에는 급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종로통에 제일은행 구 전매청앞 가각공지 등 수목 등은 지난 5월 가뭄때 이를 소홀히 하여 잔디나 수목 등이 고사된 사례가 있었는 바, 사후에는 순찰을 정례화하여 관리부실로 수목이 고사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개설도로에 저촉되어 수용되고 잔여지가 발생할 경우 20㎡미만은 확대보상이 되나 20㎡이상 잔여대지는 현황대로 존치토록하고 있는 바, 20㎡내외의 잔여대지는 사실상 건축부지로서의 효용이 없으므로 확대보상 면적의 상향조정을 건의하기 바라며 세 번째로 교남·무악, 경복궁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5억여 원을 투입하였으나 현재 구역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용역결과가 휴지화 되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 사례가 있으니 사후에 용역의뢰시는 사후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네 번째로 '99~2000년 5월까지의 무허가건물이행강제금은 총 7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억 6,800만원에 그치고 있어 극히 부진한 바,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제도가 년 3%의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 복지적 시혜정책임에도 이용률이 극히 부진하므로 이는 홍보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며 여섯 번째로 신교동 57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개선계획고시 이후에 계획도로 저촉부분에 증축허가를 잘못함으로써 우리 구가 보상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일곱번째로 시민아파트를 보상 철거함에 있어서 보상금 수령 후는 즉시 이주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상만 수령하고 철거일 마지막까지 거주하는 즉 보상행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할 것이며 여덟번째로 종묘공원의 야간 이용 상태가 극히 불량하니 공원의 효율적 관리 방법을 강구하고 아홉번째로 약수터를 개발 또는 개축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질검사를 상당기간 꾸준히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개발함으로서 개발 후 수질악화로 폐쇄시키는 예산낭비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번째로 평창동 285번지선에 30여 년 전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광장이 있었으나 이후 광장과 관련된 도로 등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되고 본 시설만 남아있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도시계획결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열한번째로 '99~2000년 무허가건물 단속 고발건수 등 감사자료가 총계건수와 맞지 않는 등 부실작성된 사례가 있으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제출하는 통계는 가급적 5월말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하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주차효율을 고려하여 대상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30평, 50평정도의 소규모 필지를 구입함으로써 투입예산에 비해 주차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주차장확보 대상부지의 취득 기준을 정하여 이 기준에 의거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두 번째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간에 점용료율이 상이하여 점유주민으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관계규정의 정비를 검토할 것이며 세 번째로 제설용 염화칼슘은 장기 예보 등을 참고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되도록 할 것이며 관내 정부기관이나 경찰서에 염화칼슘을 지원할 때는 공용도로사용 용도로만 사용이 되도록 하고 경내 사용용도 등에는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표식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통행료, 가스사용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비대상자가 장애인 표식을 부착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장애인차량 표식관리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바라며 다섯번째로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매년 체납일소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체납액이 계속 누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여섯번째로 동절기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포장품질이 불량하여 재포장하게 되는 바, '99년도에는 약 600평에 대하여 2,000여만원을 투입 재포장한 사례가 있으므로 동절기 포장공사는 가능한한 지양하도록 하기 바라며 일곱 번째로 20m이상 간선도로변 일부 구간에 빗물받이가 노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강우시 빗물이 노면에 고여있는 경우가 있으니 강우시 순찰을 통하여 이런 지역을 조속히 개량하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일부 대형음식점앞 교통안전지대 등 주차금지공간에 불법주차가 있을 시 당해업소와 관련여부에 따라 묵인 또는 견인조치하는 등 주차단속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아홉번째로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가로가판점은 당초에는 노점상의 체계적 정비와 생계지원용으로 타인 전매가 불가한 조건으로 허가되었으나, 현재는 상당한 권리금에 내부적으로 전매가 횡횡하는 이권 사업화가 되어 있고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되고 있어 이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종로통의 과다한 인도점용 등의 노점상 정비 방안도 동시에 점검하기 바라며 열번째, 區가 시행하는 도로, 하수, 복지시설,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각종 공사는 주민에게 시혜적 행정임에도 이의 홍보가 부족하여 투자에 상응한 주민의 호응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구정의 홍보차원에서도 관내 공사시행시에는 반드시 관할 구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구의원의 예우차원에서도 이를 확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불법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등기압류하고 있으나 노후된 차량으로 계속체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경우는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간단히 피력하였습니다. 오늘 지적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성의껏 개선 보완하여 전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관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6월 30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께서는 오전 11시까지 시민행정위원회실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時44分 散會)

○出席委員 9人

吳弼根　崔康洵　吳錦南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金以煥　宣相善
玄壽漢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財務課長 趙秀完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2課長 朴升年
地籍課長 徐燦奎

住 宅 課 長 姜仁豪
都市計劃課長 鄭鎭皓
建 築 課 長 李漢九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建設管理課長 洪柱喆
土 木 課 長 李宗哲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交通指導課長 宣圭景